



공노조 무주지부, 튀르키예·시리아 성금 기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박길준 지부장은 환인홍 군수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들 국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박 지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진피해를 극복해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무주군지부는 이웃 사랑·나눔을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와 이웃 지구촌 국민들이 활력과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환인홍 군수는 "공무원노조 무주군지부가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해주시 따뜻한 마음이 이들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농협 무주지부-농축협,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권오정)는 지난 23일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농·축협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과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무주군 관내 농·축협 임직원들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자매결연 농협 등과 상호 가부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권오정 지부장은 "지역 농·축협 임직원들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전달창구 운영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무주=전원선 기자

김제지역 농협 임직원 등 고향사랑기부 동참

임인 농협 김제시지부장을 비롯한 김제 관내 농협 임직원과 그 가족 120여명이 김제시 애향분부와 뜻을 모아 김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2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은 지난 24일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린 김제시 애향분부장 취임식에서 정성주 김제시장, 임인 농협 김제시지부장 윤주현 신임 김제시 애향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인 지부장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김제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임직원과 가족들이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범농협 및 유관기관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프라인 접수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부에 동참하여 주신 농협 임직원 및 가족분들께 감사하다"라며 "김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경찰, 전통시장 찾아 교통안전 홍보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는 지난 22일 코로나 거리두기, 실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및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했다.

정읍시내 전통시장은 2월과 7월에 삼고을시장, 연지사장 등에서 전통 오일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시장 순찰함과 동시에 최근 추진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홍보문구가 인쇄된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보행자 3원칙(사다.보다.간다)과 최근 개정된 횡단보도 주행 시 유의해야 할 점, 차량 운행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시장 상인과 함께 하는 홍보활동 방식으로 실시했다.

황동석 정읍경찰서장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 홍보를 통해 푸근한 상인들의 인심과 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웃음을 교통안전으로 함께 지키고 싶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회 참가자들에게겐 관광의 좋은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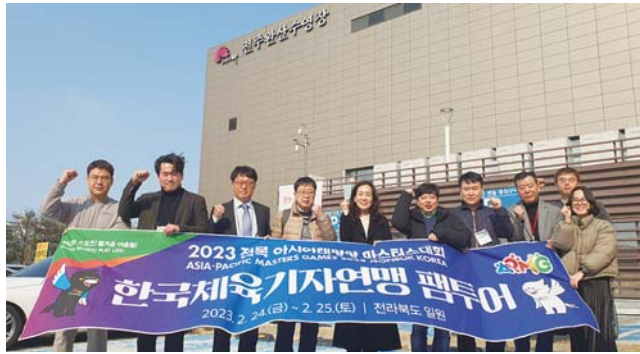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체육기자연맹 회원사 간부 대상 팸투어

2023 전북 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는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원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스포츠 전문 언론사 부장·국장급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지인 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원사 간부들은 전라북도를 찾아 24~25일 1박2일 동안 종목별 주요 경기장 및 전주 한옥마을과 진안 마이산 등을 방문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국체육기자연맹 양종구 회장은



대회가 관광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팸투어 일정이 짧았지만 맛과 멋의 고장 전라북도를 방문해 전라북도의 매력을 느끼고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범민 조성에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를 개최하는 전라북도가 대회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주 한옥마을과 진안 마이산 등 전라북도에는 볼거리도 많고 국내외 참가자들에게는 이번 대회가 관광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북도 '이달의 혁신주인공' 이기은 주무관

전북도 해양환경과 이기은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청년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2월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청년 주인공'을 선정했다.

2월 주인공은 지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라북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이기은 주무관은 해양환경과에 근무하며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시설관리 등 업무를 맡아 전북도 해양보전과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지역주민과 행정이 함께 추진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2022년 국가해양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또한 이 주무관은 전북도청 '청창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한 도민으로부터 민원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으로 감사의 편지를 받기도 했으며, 이 부분에서 적극성과 솔선수범한 자세를 인정받았다. /김재훈 기자

‘국악신동’ 김태연, 새만금잼버리 홍보위사로 위촉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국회의원 김윤덕, 이하 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최되는 전세계 청소년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홍보대사로 국악 신동 김태연(11)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태연 홍보대사는 앞으로 세계잼버리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행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영상과 포스터 등을 포함한 홍보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현장 홍보에도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태연 홍보대사는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부지에 연접한 부안 출신으로 8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관소리 초등부 대상을 차지해 국악신동으로 불렸고, 10살에는 미스트롯에 출연해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조직위원회는 김태연 홍보대사가 참가 청소년들과 비슷한 연령으로 공감대 형성이 쉽고, 범 내려준다는 열정에 '아 기쁨'이라는 애칭을 얻은 바 있어 세계잼버리 공식 캐리커



인 '새버미'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연 홍보대사는 "계 고향인 부안에서 전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세계잼버리가 열린다고 하여 응원하고 있었는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기쁘고, 앞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잘 수행해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새학기 새출발... 전주장애인복지관, 57명에 선물 전달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용민)은 새학기 새출발 프로젝트로 지역사회 내 저소득 장애인가정 아동 57명에게 새학기 선물(가방 신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가방 신발 지원사업은 새학기용품을 정만하는 또래의 아이들과 달리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작고 낡은 가방과 구겨 신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야하는 저소득 장애인가정 아이들에게 새가방 새신발을 선물하며 밝고 씩씩하게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모금을 위해 네이비해피빈 기부자원 모금함 카카오톡이 가치 신발지원 모금함을 통해 네티즌들의 기부로 모금이 진행됐으며, 총 165만4,800원이 모금돼 57명 아동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모(12) 어린이는 "엄마에게 새것을 사달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내가 갖고 싶었던 가방과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어 매우 설레고 기분이 좋아요"라며 미소를 보였다.



박용민 전주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축되고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꼭 필요한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김제경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김제경찰서는 지난 23일 경찰서 3층 모야홀에서 김영록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 경찰발전협의회 송성찬 협의회장과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 김제경찰 추진 사항 홍보 △하반기 경찰 정기 인사발령 사항 알림 △감사패 및 위촉장 전달 △김제경찰서 주요 치안활동 소개 △공공단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김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참석자 모두가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오송욱 경비교통과장은 "경찰발전협의회 건의사항이었던 시흥회전과치로 소재 중앙분리대의 디자인 변경, 홀플러스 사거리 우회전 차로 설치, 순동사거리 좌회전 신호 연장 등의 의견이 각 부처와 협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현재 진행 사항을 설명했다.

끝으로 송성찬 경찰발전협의회장은 "행복비리사범 넘칠 수 있는 경찰발전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고, 경찰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경찰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록 경찰서장은 "경찰발전협의회 많은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김제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화답하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김제가 되도록 공동체 치안을 만드는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원조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해경, 해양오염 사고 대비 방재대책본부 재구성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지난 24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방재대책본부를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부안해양경찰서와 관계기관의 요원을 토대로 인력을 재구성하고, 해양오염사고 발생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방재체계를 확립해 초동대응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방재대책본부는 본부장인 부안해양경찰서장을 중심으로 공보관과 대응계획부, 현장대응부, 자원지원부 3개의 부로 구성, 해양에 유출될 경우 대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는 지속성 기름(원유, 중유 등) 10톤 및 해양표면에서 증발하여 날아가는 비지속성 기름(경유 등) 또는 유해화학물질 100톤 규모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치된다.

또한 규정된 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이나 환경에 현저한 피해를 끼치거나 기밀 우려가 있어 지역방재대책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설치되며, 지역방재대책본부 설치 기준 이상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광역방재대책본부, 중앙방재대책본부 순서로 확대 설치한다.

최종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재구성된 지역방재대책본부 기능별 운용 요원들을 대상으로 임무와 역할 숙지를 위한 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대규모 해양오염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올 사업설명회 개최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명재 센터장)는 24일 진안여교타운 세미나실에서 2023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 사회적기업 및 단체들과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심있는 각 기관 단체 및 개인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한명재 센터장은 인사말로 설명회를 시작하고 김재현 국장이 직접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올해 진행되는 사업들을 소개하고 안내했다.

특히 지난 한 해 인기가 많았던 세무비용지원사업과 소모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2023년 교육일정 안내 및 모집이 안내됐다.

진안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명재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안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사회적기업을 비롯 한 단체 및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원산소방서, 코요롱 스카이라이프 찾아 현장 행정

전주원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원산군 소재 코요롱 스카이라이프를 방문해 대형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고층건축물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재난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 요소를 제거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덕진소방서, 황방산 서고사서 안전점검 실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덕진구 팔복동 황방산 소재 전통사찰 '서고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신림화재 예방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다.

이날 '서고사'를 찾은 김 서장은 사찰 내 화재 안전관리 실태 여부와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체 관리 및 대처사항에 대한 지도를 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전통사찰과 산림은 우리의 역사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소중한 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통사찰 관계인의 화재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